

엔데믹 시대에 공동체성 회복과 관계성의 공간

김광연 (송실대학교, 연구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코로나19에서 팬데믹으로

1. 코로나19와 패러다임의 변화
2. 모임 공동체의 상실과 마스크를 쓴 타자

III. 엔데믹(endemic) 시대의 모임 공동체 회복과 공간의 친밀성

1. 칼 바르트의 '사건'으로서의 모임 공동체와 관계적 존재
2. 레비나스의 '관계성의 공간'과 '공간의 친밀성'
3. 마스크의 얼굴에서 민낯 얼굴로

IV.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05>

• ABSTRACT •

Restoration of Community and Space of Relationship in the Age of Endemic

Kim, Gwang-yeon (Research Faculty, Soongsil University)

Until now, we have been through the non-face-to-face society of the last COVID-19 era. As a result, the church could not hold services in the sanctuary. Small gatherings and group activities were suspended, and even small gatherings for religious life were prohibited. Also, while our society went through Covid-19, people experienced too much psychological shrinkage. As the endemic era comes after COVID-19, our society has become busy transitioning to the face-to-face system. Churches were allowed to worship in their buildings, and small bible studies and group activities for faith resumed.

With the complete restoration of the face-to-face system as a social structure, we have been given a new task for the Korean church to pursue. Levinas now offers us an alternative. Levinas says that others' pain and suffering are areas of responsibility within the community. In the age of endemic, he tells us to "have a face-to-face meeting with the other in an intimate space." The faces of others are always waiting for us, and now we can get close to them. The pain shown on the faces of others is the responsibility of our community.

Key words: Post Corona, Endemic, Face-to-face Society, Space of Relationship, Proximity, Christian Community

I. 들어가는 말

지난 2~3년의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사회가 고착화 되었고 이미 우리 사회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너무 친숙해졌다. 온라인 시스템은 교육과 직장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수업 정상화를 위해 학교 교육은 온라인 화상을 통해 수업을 진행되었다. 직장에서는 주로 재택근무를 통해 실시간 화상(줌)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종교 활동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쳤다. 교회에서의 모임은 최대한 줄여나갔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신앙생활도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이행되는 시기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비대면 시스템이 사회에 자리 잡게 되면서 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등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대면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느끼면서 동시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던 패러다임의 전환 역시 불가피한 경험을 몸소 체험했다. 그 기간 동안 비대면 설교와 예배에 대한 신학적 논의도 활발했고, 새로운 모임 공간의 변화로 인한 공동체의 방향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타인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타자와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책임 더 나아가 사회적 교류와 책임까지 소홀하게 되었다.

이에 이 글은 엔데믹 시대에 따른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복귀와 공동체의 모임 그리고 타인의 얼굴을 대하면서 생기는 관계성과 그 책임을 논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이 글은 칼 바르트의 모임 공동체를 살펴보고

그 동안 상실되었던 성도의 모임과 관계에 대해 논한다. 이 글에서 칼 바르트의 ‘모임 공동체’와 레비나스의 ‘관계성의 공간’을 다룬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소원해졌던 성도의 교제 회복과 관계적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함이다. 이 글은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과 책임을 다루면서 그 동안 우리가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대면을 통한 타자와의 관계성, 성도의 모임 공동체 회복 그리고 타자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고 있다.

II. 코로나19에서 팬데믹으로

1. 코로나19와 패러다임의 변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전 세계는 팬데믹을 선포하고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었다. 코로나19는 국제적 행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에도 엄청난 여파를 가져왔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반 토막이 나고 여러 지자체 모임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경제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공식 보고된 것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수가 693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했다.¹⁾ 여러 번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으로서 감염원의 특징과 경로 그리고 치명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없고 알려지지도 않아서 바이러스의 공포는 더욱 커져갔다.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는 감염병으로 인해 주위에 누가 바이러스에

1) 문화일보,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690만명”, 2021년 5월 7일자 기사.

노출되었는지 불안에 떨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을 호소했다. 수시로 체온을 재거나 목이 답답하고 칼칼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과 감염의 신호가 아닌지 바이러스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²⁾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의 모든 변화를 가져왔다. 직업, 학교, 취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물리적 거리를 멀게 만들었고,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 그리고 염려, 사회적 단절 등의 다양한 심리적 과제를 낳고 말았다.³⁾

감염으로 인한 공포는 루머와 낙인 그리고 차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주위에 누가 한명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주위에 누가 걸렸다가거나 누구 집에 환자가 발생했다는 등의 혐오와 낙인 때문에 마음 아픈 기억도 지울 수 없었다.⁴⁾ 심지어 감염자에 대해서는 공간의 격리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비난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코로나19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그 가족의 신상까지 알려지면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⁵⁾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는 디지털 전환에도 가속도를 붙이게 했다. 우리는 바이러스 공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디지털 교육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학교는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새로운 도전과 함께 디지털 격차에도 많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경험했다.⁶⁾ 직장에서는 재택근무로 인해 원격근무 중심으로 근무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 장비를 통해 직장처럼 일을 하는 대안 근무가 시험 무대에 올랐다. 코로나19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재택 근무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약 60% 정도가 재택근무를 했으며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보

2) 김수현 외 12인, 『포스트코로나 사회』, (서울: 도서출판 글항아리, 2020), 95-96.

3) 고규영 외 16인, 『코로나 사이언스』, (서울: 동아시아, 2020), 159.

4) 김수현 외 12인, 『포스트코로나 사회』, 100-101.

5) 이종원, “혐오에서 공감과 환대어로”, 『기독교사회윤리』 49권(2021), 113.

6) 황세희 외 15인, 『코로나 시대 한국의 미래』, (서울: 서울셀렉션, 2020), 103.

다 재택근무 비율에 있어서 훨씬 높았다.⁷⁾

코로나19는 주일과 예배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형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위해 발 빠른 대처로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교회와 개척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가정예배로 대체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내에서는 온라인 예배의 진정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신앙적 고민거리들이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응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게 되었고, 이에 온라인 예배는 또 다른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끝자락이 서서히 보이는 시점에서 우리는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 구조적인 고민들과 교회에서의 신앙적 변화들 그리고 비대면 시스템에 익숙해진 도덕적 실천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모임 공동체의 상실과 마스크를 쓴 타자

코로나19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신앙의 형태를 포기해야 할지 말지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교회는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교인들은 예배와 교제를 오프라인(온라인)에서 참여해야 했다.⁸⁾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는 여러 변화가 찾아왔다. 그 동안 한국 교회가 집단주의 신앙의 형태에서

7) 위의 책, 76-77.

8) 안재경, 『코로나 예배 전쟁』, (서울: 세움북스, 2021), 18-19.

개인주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개인의 신앙과 결단을 강조하는 기회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예배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는 발상에 대한 전환도 새로운 변화라고 보는 시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⁹⁾

코로나19 이전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 개념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앙자료와 교육 등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송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 동안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 자료나 학습 등 인터넷에서 신학 자료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 등을 얻는 데만 사용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설교나 신학적 토론 등의 영상을 시청하는 정도로 그쳤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온라인을 수단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과거 코로나19의 확산이 누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형교회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대면예배에 익숙해 있는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의 전환으로 인해 영상의 화질이나 질적인 측면 그리고 인터넷 접속 등의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⁰⁾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는 예배와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상호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¹¹⁾ 하지만 코로나19는 사회적

9) 위의 책, 19.

10) 유지은, “한국 기독교인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제72집(2002), 239-240.

11) 안재경, 『코로나 예배 전쟁』, 116.

거리두기 실천을 요구했고, 교인들은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더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었다.

기독교 전통에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場)이라고 간주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공적인 모임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고,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모임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공적 모임의 상실은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패턴의 변화이다. 공적인 예배와 시간들이 줄어들고, 공적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세계최대의 대형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새벽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공적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교회와 주변 건물에 대한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¹²⁾ 이로 인해 공동체에서의 공적 모임 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즉 공동체에서의 신앙의 형태는 해체되고 대신 사적인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들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참여하는 장소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 대면 예배의 대안으로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수용했던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온라인 공간에서의 예배 형태와 장소의 전환에 대해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¹³⁾ 이러한 공간의 변화에 따른 신앙과 예배 그리고 대면 선교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동시에 이러한 코로나19의 상황은 예배와 선교 그리고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비대면 온라인 선교와 교육은 원격교육의 형태로 변화

12) “여의도순복음교회 2주간 온라인 예배 전환”, 국민일보, 2020년 8월 18일 기사.

13) 성영은 외, 6인, 『포스트코로나와 교회의 미래』, (서울: 생명의 양식, 2021), 179.

되어서 동시적 공간의 사용에 해체를 가져왔다. 비대면상에서 서로 떨어진 장소에서 원격의 형태로 전환된 예배와 교육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모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온라인 비대면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는 또 다른 위기 상황을 경험했다. 바로 '타자의 얼굴보기'의 상실이다. 대면을 거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는 타자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온라인(화상)으로서만 그들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는 타인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게 만들고 타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물리적 간격은 더욱 멀어졌다. 이에 따른 타자에 대한 책임의 결여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대면기회의 상실과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 시간의 상실로 인해 타자와의 관계성의 상실까지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타자의 얼굴을 요청하는 시대가 필요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타자와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구조에서 우리는 한 철학자를 요청하게 되었다. 바로 레비나스(E. Levinas)가 제시한 타자의 얼굴이다. 그는 타자의 얼굴에 대해 말하고 그 얼굴은 단순히 존재론적 의미로서의 등장이 아니라 타자의 책임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타자의 얼굴의 현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청한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19의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이제 겨우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겨우 타자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 것이다.

레비나스는 얼굴의 현상학적 의미를 제시한다. 그는 얼굴의 드러냄을 통해 타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등장시키고 있고,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사이는 타자의 존재를 알게 된다고 했다. 그는 타자와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을 존재론적 영역을 넘어 책임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낯선

타자의 맨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고 얼굴의 등장은 윤리적 책임으로 이어진다.¹⁴⁾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 책임감을 넘어 신의 근접성까지 이어진다고 말한다.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 신의 음성을 듣고 동시에 신의 현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이처럼 레비나스의 윤리적 요청은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어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타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야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는 맨얼굴을 한 타자의 모습을 접하기 어려웠다. 물론 온라인(화상, zoom)으로 대면은 가능했지만 직접 맨얼굴을 한 타자의 모습을 마주하기란 더더욱 힘들었다. 거기에서 마스크를 한 타자의 얼굴은 가면을 쓰고 나온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 간격은 더욱 멀어지게 되고, 타자의 책임에 대한 부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 또한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젠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끝자락이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타자의 맨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여러 모임 공동체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다. 그 동안 미루어왔던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타자의 얼굴과 타인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될 때가 된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칼 바르트의 모임 공동체와 레비나스의 공간의 친밀성에서의 타자와의 만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4) 성신형, “존재의 의미에 대한 윤리적 답변”, 『현상과 인식』, 38권(2014), 88-90.

15) 위의 논문, 91-92.

III. 엔데믹(endemic) 시대의 모임 공동체 회복과 공간의 친밀성

1. 칼 바르트의 '사건'으로서의 모임 공동체와 관계적 존재

이제 긴 코로나19의 감염병에서 탈출한 우리 사회는 엔데믹(endemic)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지난 5월 11일 정부는 코로나19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사실 엔데믹을 선언했다. 발표 내용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등 지난 2020년 1월 20일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뒤 대략 3년 4개월 만에 방역 규제가 바뀌게 된 것이다.¹⁶⁾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넘어 엔데믹 시대의 전환을 언급한 것이어서 사람들은 일상화로 돌아가는 데 더욱 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3년 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온라인 설교와 예배 참여에 익숙해져 있었다. 온라인 예배의 진정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들이 활발했던 것과는 달리,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적 신앙과 예배와는 사뭇 거리가 먼 온라인과 화상을 통한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예배에 친숙해져 있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온라인 예배에서의 신앙생활이나 선교 또는 새신자 양육에 대한 갈급함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을 것이다.

이제 엔데믹이 선포되면서 점차 사회는 일상화에 익숙해지고, 교회 또한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엔데믹의 시간은 코로나19 이전 과거 시대의 회기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 비대면 온라인에서의 신앙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사적 공간이 지배적이었던 과거 코로나19와는 달리, 공적 공간이 확대되는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과거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던 모임과 예배와는 달리 코로

16) “오늘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연합뉴스, 2023년 5월 11일 기사.

나¹⁹ 이전 교회 공동체에서의 경험과 공적 모임의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공간의 변화 즉 사적인 영역에서의 공간을 벗어나 공적 공간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 생활의 재발견을 요청하게 되었다.

칼 바르트(K.Barth)는 개인의 단독적인 신앙고백을 넘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의 신앙과 ‘관계적’ 삶을 다룬다. 바르트는 개인적인 신앙과 신학보다 공동체의 신앙과 신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신학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바르트는 개인의 신앙을 결코 경시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개인도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¹⁷⁾ 그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개인, 타자와 함께 관계된 개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바르트에서 ‘모임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가 이어지는 순간순간 신적인 가능성을 출현시킬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닌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미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것을 단순히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삶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고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상실된 관계를 바로 잡고 회복시키는 ‘관계적 공동체’를 말한다.¹⁸⁾

바르트는 교인들을 ‘성도들의 사귄(Communio Santorum)’으로 불렀다. 그는 교회(Kirche)를 ‘공동체(Gemeinde)’로 표현했다.¹⁹⁾ 그는 교회라는 ‘Kirche’의 단어 이외에도 ‘Gemeinde’를 뜻하는 말을 교회로 사용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곧 모임이고 공동체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바르트는

17) 이성호, “사건으로서의 교회: 칼 바르트의 교회론 연구”, 『역사신학논총』, Vol 36(2020), 227.

18) 이신건, 『칼 바르트의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0), 55-56.

19) 이신건, “칼 바르트의 예배 이해”, 『신학과 선교』 Vol 33(2007), 3.

《교회교의학》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장소이고 예수와 함께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이곳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공간이라고 말한다.²⁰⁾ 동시에 예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해 세워졌고 세상 속으로 파송된 공동체이다. 기독교 공동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²¹⁾ 바르트는 예수의 공동체는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세상 속에 함께하며 세상을 위해 필요한 공동체라고 보았다. 그는 개인의 신앙보다 공동체의 신앙과 삶을 우선시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고백과 선포는 개인의 선포보다 우선시되고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앞서 교회의 몸으로서의 지체임을 강조했다.²²⁾

또한 그가 말한 교회는 객관적이고 동시에 보편적인 공동체로서의 확증성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 교회 공동체는 상호적인 관계성을 통해 집단적인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²³⁾ 바르트는 교회(Kirche)는 공동체(Gemeinde)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결여 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집합체로서 피상적인 인간의 모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²⁴⁾

무엇보다 바르트는 공동체가 세상을 위해 나아가야 할 적극적인 조력을 거부하거나 행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닭은 끌’이라고 말했다.²⁵⁾ 그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가야 할 사명을

20) Karl Barth, *Die Kirchlicher Dogmatik*, IV/3-2, 황정욱 역, 『교회교의학IV/3-2』(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303.

21) Karl Barth, *Die Kirchlicher Dogmatik*, IV/3-2, 309.

22) 이성호, “사건으로서의 교회: 칼 바르트의 교회론 연구”, 227.

23) 김영관, “바울의 신학에 기초한 칼 바르트의 교회론”, 『신학사상』, No.138(2007), 5.

24) Karl Barth, *Die Kirchlicher Dogmatik*, IV/3, 751; 김영관, “바울의 신학에 기초한 칼 바르트의 교회론”, 7 재인용.

25) Ibid., IV/3-2, 321.

가진다고 말했다.

바르트는 《교회교의학》에서 교회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다. 그는 설교와 하나님 말씀 선포를 하나의 ‘사건(event)’으로 본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의 현실이 될 때, 그것은 사건이 된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기획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건이 아닌 것이다.²⁶⁾ 그가 말한 사건은 스토리(story)이다. 그 스토리는 바로 교회의 이야기이다. 단순히 역사적 맥락으로서의 사건이 아니라 주체가 선명한 하나의 스토리인 것이다. 사건은 단순히 신학적이거나 종교적 이론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한다. 교회는 이론적인 접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조되고 새롭게 신적인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²⁷⁾

바르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빈공간’에서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것은 반드시 현실성에 근거해 있어야 하고, 그 현실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도성의 덕택으로 형성된다고 했다. 선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뒤따르며 동시에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정태적이고 수동적인 형식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계론적(mechanically)’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모습이나 선포의 내용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성서를 신앙 속으로 넣고 있다.²⁸⁾ 그 동안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수동적인 신앙과 예배에 참여했다. 이러한 정태적인 신앙의 형태는 스토리를 만들어나갈 수 없다. 바르트가 지적했듯이, 기계론적 신앙, 즉 여러 개의 톱니 바퀴가 목적 없이 맞물려 돌아가

26) Geoffrey W. Bromiley, *Introduction the Theology of Karl Barth*, 신옥수 역,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24-25.

27) 이성호, “사건으로서의 교회: 칼 바르트의 교회론 연구”, 235.

28) Geoffrey W. Bromiley, *Introduction the Theology of Karl Barth*, 25.

는 기계처럼 수동적인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에 동참하고 ‘역동적으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엔데믹 시대가 접어들었다. 온라인에서 사적인 모임과 예배는 이제 공적 공간으로의 변화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모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과거에 우리는 공적 공간의 해체의 불가피성을 경험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공적 공간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엔데믹 시대에 초대교회 모임 공동체에서 절실히 기도하고 힘써 모여서 간구했던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으로 공공성의 방향성과 목표를 다시금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시대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2. 레비나스의 ‘관계성의 공간’과 ‘공간의 친밀성’

코로나19의 종식이 막바지에 이르러 엔데믹 시대로 전환되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변화들이 서서히 목격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봄비는 대형 쇼핑몰에서는 인파가 넘쳐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도 코로나19이후 차츰 활기를 되찾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3년 만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2023년 부활절 퍼레이드가 열리고 이날 행사는 개신교인 1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오프라인 행사였다.²⁹⁾ 부활절인 지난 4월 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다양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3년 만에 대규모 행사로 많은 개신교인들이

29) “봄나들이 왔어요, 3년만의 대규모 행사에 광화문 북적”, 조선비즈, 2023년 4월 9일 기사.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참여했다.³⁰⁾ 이처럼 정부의 엔데믹 선언과 맞물려 대형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이제 교회도 서서히 엔데믹 시대의 신앙과 모임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적 공간의 해체는 하나의 장소에서 타자와의 삶을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레비나스는 인간의 주체는 하나의 장소 즉 어떤 장소에서 '자리함'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주체는 '여기, 바로 이곳'에서 존재하고, 지금 있는 이 곳에서 시작된 출발점을 삼아 세계로 나아간다고 했다. 지금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의식 행위와 사유가 가능하고, 허상이나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사유가 자리 잡을 수 없다고 말한다.³¹⁾ 그는 자리함의 공간은 의식의 추가물이 아니라 의식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본 조건이라고 말한다.

사유는 출발지점을 가진다. 의식은 '자리함'에 대한 의식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식 속에서 흡수될 수 없는 의식의 '자리함'인 것이다. 인식에 대한 인식 또한 바로 '여기'에서 가능하다.³²⁾

레비나스는 지금 '여기'의 자리함은 의식의 출발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장소는 의식 주체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는 '여기에 자리잡음'은 현재와 관련되어 있다.³³⁾ 그리고 타자를 살려내고 동시에 타자와의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관계가 가능

30) “오늘 전국서 부활절 예배·미사…광화문 일대 대규모 퍼레이드”, 연합뉴스 2023년 4월 9일자 기사.

31) 강영안, 『레비나스의 철학: 타인의 얼굴』,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20), 95-96.

32) Emmanuel Levinas, *DE L'EXISTENCE A L'EXISTANT*,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2011), 117; 강영안, 『레비나스의 철학: 타인의 얼굴』, 93-94 재인용.

33) 강영안, 『레비나스의 철학: 타인의 얼굴』, 98.

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그의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³⁴⁾ 그는 ‘장소’는 ‘어딘가’로서의 막연한 곳이 아니라 하나의 기반(ground)이자 조건으로 보고, 장소는 기학적 공간이전에 세계를 구성하는 구체적 환경 이기에 앞서 하나의 기반이라고 말한다.³⁵⁾

레비나스는 인간은 존재할 수 있는(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을 때 그 곳을 시작으로 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서 있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있다. 그는 하우스(집, house)라는 거주 공간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집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지만 집을 중심으로 객관적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말한다.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자신의 내면의 정립이 시작되는 공간이다.³⁶⁾ 그는 타인의 존재에 대한 주체의 대답에서 윤리적 존재의 근거를 찾고 있다. 타인의 얼굴은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바로 여기에서 타자와 주체간의 대화가 시작된다. 이 대화는 얼굴과 얼굴의 대화인 것이다. 타인의 얼굴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가 바로 정의의 문제가 제기되는 곳이다.³⁷⁾

그는 ‘지금 이곳’ 그리고 ‘바로 여기’라는 표현을 통해 타자를 향한 ‘직접적인 드러냄’을 말하고 있고 바로 이곳에서 나의 직접적 행함이 표출되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는 중단 없이 타자와의 가까움과 책임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타자의 존재론적 이해보다 더 근원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³⁸⁾

레비나스는 이러한 공간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객관적 세

34) 위의 책, 118.

35) 레비나스, 『존재에서 존재로』, 116-119.

36) 강영안, 『레비나스의 철학: 타인의 얼굴』, 137.

37) 성신형, “존재의 의미에 대한 윤리적 답변”, 94-95.

38) 김종엽, “레비나스 그리고 가까움의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53권(2012), 13-14.

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으로서의 공간은 타인의 등장이 가능한 곳이다. 이 공간은 ‘친밀성의 공간’으로서 타인이 벌거벗은 얼굴로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정다감하게’, ‘다소곳이’ 나를 받아들이는 타인의 모습을 하는 곳이다.³⁹⁾ 레비나스의 이러한 친밀성의 공간에서는 ‘섬세한 마음’으로서의 윤리적 접근이 시작된다. 이는 과학적이고 엄밀한 학문적 방법이 아닌 영혼의 내부에서 자리 잡은 직감의 형식이다.⁴⁰⁾

레비나스는 친밀성의 공간에서의 ‘근접성(proximity)’⁴¹⁾에 대해 말한다. 그는 타자의 얼굴이 늘 사람 곁에 근접해 있고, 그곳에서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와의 관계성이 생성되는 곳이라고 말한다. 이곳 공간에서 단순히 근접성은 가까움으로서의 서로간의 상호적 관계성을 언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타자가 바로 내 앞에서 있다는 의미에서의 근접 경험인 것이다.⁴²⁾ 타자의 얼굴은 항상 우리 곁에 근접해 있다. 여기서의 근접성은 단순히 가까움 그 이상으로서의 상호적인 것을 넘어서서 항상 나와 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 근접성, 곁에 있음 그리고 가까움은 윤리적 결단보다 선제적이다.⁴³⁾ 여기서 마주하는 타자의 얼굴은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말을 걸어온다. 어떠한 가식도 없고 숨김도 없이 타인에게 맨 얼굴로 다가오는 존재이다. 이 과정에서 둘의 만남은 소통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

39) 강영안, 『레비나스의 철학: 타인의 얼굴』, 139.

40)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과 탈현대윤리학”, 41.

41) 레비나스가 말한 ‘근접성(proximity)’은 타인과 나와서 물리적 근접성을 넘어서서 타자에 대한 책임에 가깝게 느껴지는 현상학적 의미를 말한다. Emmanuel Levinas, *Ethique et Infini* 김동규 역, 『윤리와 무한(필립 네모와의 대화)』 (서울: 에라스무스 총서, 2020), 109-110.

42) 성신형, 『틸리히와 레비나스의 윤리적 대화』, (서울: 한들출판사, 2018), 64-65.

43)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형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3권 (2015), 194-195.

히 존재론적 관계를 넘어선다. 이들은 윤리적 주체로 만들어가는 관계이다.⁴⁴⁾

3. 마스크의 얼굴에서 민낯 얼굴로

앞서 레비나스는 친밀한 공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공간은 낯선 타인이 등장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 타자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근접성이 가능하다. 타자가 바로 내 앞에서 있는 곳으로서의 공간인 것이다.

친밀한 공간에서의 타자의 얼굴은 인식 대상이 아니라 얼굴 그 자체로 윤리적 호소와 책임을 요청하고 있다. 타자의 얼굴은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는 명령인 것이다.⁴⁵⁾ 레비나스는 ‘존재’에 관한 물음에서 자아의 주체성에 정체된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질문 즉 존재의 지평선을 넘어서서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다.⁴⁶⁾

지난 과거 우리는 타자와의 친밀한 공간을 잃어버렸다. 타자의 등장 가능한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다만 온라인에서 낯선 타자들을 볼 수는 있었지만 내 곁에 서있는 낯선 타자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라지고 이제 우리 사회는 대면 시스템의 완벽한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들어섰다. 대중교통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 축제에는 많은 인파가 몰린다. 교회 예배와 대형 마트 등 대다수 인파가 모이는 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체되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공동의 공간에서 타자의 얼굴을 언제 어디서든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44) 성신형, 『틸리히와 레비나스의 윤리적 대화』, 65-66.

45)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과 탈현대윤리학”, 『철학논총』 23(2001), 42.

46) 성신형, “존재의 의미에 대한 윤리적 답변”, 『현상과 인식』, 88.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타자가 아닌 솔직한 모습의 얼굴을 한 순수한 타자의 얼굴을 마주보게 된 것이다.

엔데믹 시대의 시작은 과거 코로나19 이전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체라는 상징성도 있겠지만 이제 마스크를 쓴 타자가 아닌 마주 맨 얼굴을 보면서 타자의 삶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타자의 얼굴 속에 숨어 있는 아픔과 형편까지도 내다볼 수 있게 만들었다. 엔데믹 사회는 이제 내가 아닌 타자의 아픔까지 보살펴야 되는 공동체의 책임까지 우리에게 과제를 남겼다.

레비나스에게서 타자의 아픔과 고통은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의 영역에 서 있다. 타인의 절규는 공동체가 맡아야 할 책임인 것이다.⁴⁷⁾ 하지만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타자와의 물리적 간격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는 타자의 고통과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 서서히 고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레비나스에게서의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는 단순히 이론적 사유에 그치지 않는다. 윤리적 책임은 인간 행위의 동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에 대한 응답이고 책임이다.⁴⁸⁾

칸트(I. Kant)는 우리에게 ‘무조건적 의무’를 제시해왔다. 그는 ‘의무(duty)’를 윤리의 중심에 놓은 최초의 철학자이다.⁴⁹⁾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보편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가진 자율성은 우리 스스로가 도덕법칙을 만들고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윤리를 제시했다.⁵⁰⁾ 그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47)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서울 북코리아, 2010), 84-85.

48)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대한 연구”, 197.

49) Richard Norman, *The Moral Philosop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71.

50) R.L. Arrington, *Western Ethics*,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Ltd, 1998), 278-279.

할 도덕적 요구는 정언적(categorical) 명령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제시한다.⁵¹⁾ 칸트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도덕법칙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의 도덕적 의무감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의무는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 했다.⁵²⁾ 이처럼 의무론적 이론들은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마땅히 이렇게 행위해야 한다’는 당위가 부과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원칙론을 주장한다.⁵³⁾ 칸트는 우리에게 거짓말의 가능성까지 허용하지 않았고, 무조건적인 당위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의무론적이고 법칙론적 윤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윤리적 책임은 의무나 행위의 동기를 넘어서고 타자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한다. 레비나스는 우리가 단지 ‘의무감’에서 비롯된 선한 행동이나 남을 위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타자의 얼굴에서 나오는 연약함에 대한 ‘다가감’이라고 말한다. 레비나스는 우리가 타자에게 친밀한 공간에서 서슴없이 만나기를 요구한다. 엔데믹 시대에 우리가 타자에게 ‘다가감’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 것이다. ‘다가감’은 공간의 동시적 체험과 모임에서 가능하다. 성경에서도 타자에게 다가감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타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루고 있다.

사도행전은 공동체에서의 ‘연합(unity)’에 대한 강한 열망을 말해주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는 초대 교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동체에서의 ‘기쁨’과 ‘(성도와와의) 관계성’이다. 사도행전이 기록되

51) James Rachels,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New York: McGraw Hill, 2006, 120-121

52) W.S. Sahakian, *Ethics: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Problems*, 송취철 · 황경식 역,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서울: 박영사, 2002), 169.

53) William K. Frankena, *Ethics*, 황경식 역,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3), 46-48.

지 않았다면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과 공동체의 삶은 매우 찾기 어려울 것이다.⁵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다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매일 더하게 하시니라”(행 2:46-47)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을 그 어느 곳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함께 모이는 공간’에서 동시적 공간의 체험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행 2:44)’의 말씀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준다. 당시 교인들에게서 수천 명의 군집으로 이루어진 대형 모임이나 집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모임에 열심을 내고 서로 각자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면서 물질적 차원에서든 돕고 서로의 위로와 사랑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다.⁵⁵⁾ 그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모이기에 최선을 다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신약성서에 나온 예수의 성만찬은 대표적인 티타임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의 성만찬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진 이후 성만찬이 초대교회로 이어져 그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⁵⁶⁾ 성만찬의 전통은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초대교회로 이어지면서 역사성을 지닌

54)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 나용화·박영호 역, 『신약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340-341.

55)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식 사도행전』, (서울: 성서아카데미, 2004), 81.

56) 박해정, “초대 교회 성만찬 연구를 통한 개신교 예배 방향 모색”, 『신학사상』, No.130 (2005), 143.

전통으로 기록되었다. 이 전통은 후에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구심력이 되고, 교인들 사이에서 성만찬을 기념하며 성도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 ‘집에서 떡을 떼며’ 항상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은 당시 초대 교회 시절 공식적인 모임 즉 성전이나 회당에 모였다. 그들은 각자 집에서 작은 규모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졌다. 그들의 모임은 일시적인 목적이나 종교적 행사가 아니었다. 그들의 모임은 ‘지속적인 관계성’이 함께하는 만남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뜨거운 열정은 그들의 모임에서 찾을 수 있었고 오늘날 모임에 소극적인 신앙에 대한 가르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⁵⁷⁾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계성’이라는 말을 잠시 서랍 속에 넣어 두었다. 그 동안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관계적 존재,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성이라는 사회적 용어보다는 거리 두기, 떨어져 있기, 온라인으로 연결하기 등의 용어들이 코로나19 시대를 대변했다. 하지만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는 또 다시 ‘관계성’이라는 말과 그 용어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성찰할 기회들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끝으로 레비나스는 엔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친밀한 공간에서 타자와의 만남을 주저하지 말 것을 제시한다. 성경에서 말했듯이, 가까이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눈 예수처럼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기 위해 항상 ‘모이는 공간’에서 떡을 떼며 서로 나누는 사도행전의 가르침처럼 긴 코로나19를 보내고 엔데믹 시대에 다시금 필요한 사명이 되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당시 사람들의 심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되고 힘들었다.

57)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사도행전』, 81.

시민들은 마스크 대란을 겪고 정수리까지 찢려서 아픈 느낌의 PCR 검사는 다시는 받고 싶지 않다는 불안을 호소했다.⁵⁸⁾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었다. 밀집 접촉자 격리도 시민들을 힘들게 했다. 누군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동선을 공개하고 주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견딜 수 없게 했다. 이제 이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임 공동체, 레비나스가 우리에게 제시한 친밀한 공간에서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IV. 나오는 말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시대의 현주소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패러다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19는 사회를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인간-인간]의 수평적 만남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후 2~3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엔데믹 시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거나 대면으로 모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는 성전에서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소규모 성경공부와 신앙을 위한 그룹 활동이 재개 되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너무 많은 위축을 받았고 동시에 재정적으로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교회는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어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곁으로 다가서는 공동체가 요청되었다.

마틴 부버(Martin Buber)⁵⁹⁾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너는 함께 거주하는

58) “코로나 40개월 끝...시민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것”, 뉴스1, 2023년 5월 11일 기사.

59) 부버는 “타자가 걸어온 길은 우리가 그(녀)와 마주쳐지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그(녀)의 길을 알지 못하다. 다만 타자와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의 만남 속에서 그것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Martin Buber, *Ich und Du*, 표재명 역, 『나와 너』, (서울:

공간 안에서의 관계를 맺는 타인을 말한다. 함께 거하는 공간에서의 거주를 통해서 주체는 세계를 표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⁶⁰⁾ 이제 코로나19의 긴 시간들이 지나가고 전 세계는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었다. 교회는 개인적 신앙의 시간에서 공동체의 신앙 생활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바르트는 《교회교의학》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공동체의 공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공간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신앙을 요청했다. 바르트가 개인의 신앙을 도외시한 적은 없었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떡과 포도주를 떼며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르트는 교회 공동체와 세상이 분리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된 공동체라고 했다. 기독교 공동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⁶¹⁾ 그는 공동체가 세상을 위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다.⁶²⁾ 바르트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며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고 보았다. 그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보다는 ‘거리두기’, ‘공동체’ 보다는 ‘개인의 시간’을 더욱 공론화 시키면서 모임 공동체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당연히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변지게 된 것이다. 물론 코로나19를 해쳐 나가기 위해 협력과 재난 대응을 위한 공동체의 연대의식은 강하게 표출되었다. 하지만 우리

문예출판사 2001), 99.

60) 강영안, 『레비나스의 철학: 타인의 얼굴』, 139.

61) Kar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V/3-2, 309.

62) Ibid., 321.

사회는 타자의 얼굴을 보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연대적 삶의 실천은 소홀히 해왔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약한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연대의식을 갖고 돕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향한 헌신과 봉사는 오직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⁶³⁾ 또한 그 연대의식의 꽃은 오직 타자의 얼굴을 마주볼 때 활짝 피어오를 것이다.

엔데믹 시대에 ‘얼굴마주보기’의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타자의 얼굴을 통한 공감을 얻어내게 만들고 있다. 공감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파악하고 타자의 사고와 정서에 적절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⁶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포함한 우리 사회는 감염병과 팬데믹 위기와 재난의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이를 통한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재난을 통해 한 번도 안면이 없는 낯선 타자와의 새로운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들과 역병을 몰아내기 위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상호간의 협력자와 조력자가 되기도 했다.⁶⁵⁾ 우리는 지난 코로나19의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를 한 가면의 얼굴이지만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타자의 아픔에 공유한 기억들을 가진다. 감염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슴없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손수 감염지로 달려가는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 모두가 타자의 얼굴에 비춰진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 우리는 팬데믹의 공포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63) 최경석, “능력에서 연대로”, 『기독교사회윤리』 53권(2022), 129-130.

64) 이종원, 『희생양과 호모 사케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9), 267; 이종원, “혐오에서 공감과 환대로”, 126 재인용.

65) 이종원, “혐오에서 공감과 환대로”, 127.

우리는 대면 시스템의 사회구조로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과제를 부여 받았다. 엔데믹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사명과 성도들의 신앙은 ‘관계성’ 맺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타자와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대인관계의 상실을 가져왔다. 이제 엔데믹 시대로 전환된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인간]의 관계성에서 시작되는 모임 공동체의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엔데믹 시대에 교회는 타자의 얼굴에 비친 창백함을 느끼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소외된 타자에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회적 연대를 위한 교회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게 되었다.⁶⁶⁾ 무엇보다 우리가 엔데믹 시대에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우리는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원칙이나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내면에서 묻어 나오는 성품과 가치이다. 그것은 일련의 규칙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내면에서 성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⁶⁷⁾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도덕적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가치를 사회 공동체와 타자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행하고자 하는 노력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남을 나처럼 대우하려는 도덕적 성품이 절실하게 되었다.⁶⁸⁾

끝으로 우리는 레비나스에 말한 친밀한 공간에서의 타자와의 만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친밀한 공간 안에서 타자로의 책임을 요청한다. 그는 단순히 친밀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다가서기를 원하고 있다.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웃고 울어주는 우리들의 내면적 성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엔데믹

66) 최경석, “능력에서 연대로” 133.

67) William K, Frankena, *Ethics*, 156-157.

68) *Ibid.*, 158-159.

시대에 접어들어 한국 교회는 그 동안 잘 진행해 왔던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회의 빛이 되는 역할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엔데믹 시기에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엔데믹 시대에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힘들어했던 국민들을 위해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선 코로나19를 겪으며 힘들었던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 그리고 성도들의 모범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Arrington, R.L. *Western Ethics*,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Ltd, 1998.
- Barth/황정욱 역, 『교회교의학IV/3-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Buber, M/표재명 역, 『나와 너』. 서울: 문예출판사 2001.
- Frankena, William K/ 황경식 역,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3).
- Geoffrey W, Bromiley/신옥수 역,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 Guthrie, D/나용화 · 박영호 역, 『신약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Levinas, Emmanuel. 김동규 역, 『윤리와 무한(필립 네모와의 대화)』. 서울: 에라스무스 총서, 2020.
- _____./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2011.
- Norman, R. *The Moral Philosop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Pojman, Louis P & Fieser, J/ 박찬구 외 3인 역, 『윤리학』. 서울: 울력출판사, 2011.
- Rachels, James.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New York: McGraw Hill, 2006
- Sahakian, W.S/송휘철 · 황경식 역,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서울: 박영사, 2002.
- 강영안, 『레비나스의 철학: 타인의 얼굴』,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20.
- 고규영 외 16인, 『코로나 사이언스』. 서울: 동아시아, 2020.
- 김수미, “통전적 선교-복음선포와 증명의 조화.” 『복음과 선교』, 제29집(2015), 11-46.
- 김수현 외 12인, 『포스트코로나 사회』. 서울: 도서출판 글항아리, 2020.
- 김영관, “바울의 신학에 기초한 칼 바르트의 교회론.” 『신학사상』, No.138(2007), 147-178.
- 김종엽, “레비나스 그리고 가까움의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53권(2012), 13-14.
- 박해정, “초대 교회 성만찬 연구를 통한 개신교 예배 방향 모색.” 『신학사상』,

No.130(2005), 143-173.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서울 북코리아, 2010.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과 탈현대윤리학.” 『철학논총』, 23(2001), 42.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3권(2015), 194-195.

_____. “존재의 의미에 대한 윤리적 답변.” 『현상과 인식』, 38권(2014), 94-95.

_____. 『틸리히와 레비나스의 윤리적 대화』. 서울: 한들출판사, 2018.

_____.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3권(2015), 194-195.

성영은 외, 6인. 『포스트코로나와 교회의 미래』. 서울: 생명의 양식, 2021.

안재경. 『코로나 예배 전쟁』. 서울: 세움북스, 2021.

유지은. “한국 기독교인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제72집(2002): 225-244.

이성호. “사건으로서의 교회: 칼 바르트의 교회론 연구.” 『역사신학논총』, Vol 36(2020), 223-253.

이신건. “칼바르트의 예배 이해.” 『신학과 선교』 Vol 33((2007), 1-12.

_____. 『칼 바르트의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0.

이종원. “혐오에서 공감과 환대로.” 『기독교사회윤리』, 49권(2021), 113.

_____. 『희생양과 호모 사케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9.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사도행전』. 서울: 성서아카데미, 2004.

최경석. “능력에서 연대로.” 『기독교사회윤리』, 53권(2022), 129-130.

황세희 외 15인, 『코로나 시대 한국의 미래』. 서울: 서울셀렉션, 2020.

“여의도순복음교회 2주간 온라인 예배 전환”. 국민일보, 2020년 8월 18일 기사.

“코로나 40개월 끝…시민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것”. 뉴스1, 2023년 5월 11일 기사.

“오늘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연합뉴스 2023년 5월 11일 기사.

“오늘 전국서 부활절 예배·미사…광화문 일대 대규모 퍼레이드”. 연합뉴스, 2023년 4월 9일자 기사.

“봄나들이 왔어요, 3년만의 대규모 행사에 광화문 북적”. 조선비즈, 2023년 4월 9일 기사.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690만 명”. 문화일보, 2021년 5월 7일자 기사.

논문투고일: 2023년 06월 22일

심사개시일: 202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13일

• 국 문 초 록 •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사회를 거쳐 왔다. 이로 인해, 교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소규모 모임과 그룹 활동은 정지되었고, 신앙생활을 위한 작은 모임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너무 많은 위축을 경험했다. 코로나19이후 엔데믹 시대가 오면서, 우리 사회는 대면 시스템의 전환으로 분주하게 되었다. 교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소규모 성경공부와 신앙을 위한 그룹 활동이 재개 되었다.

우리는 대면 시스템의 사회구조로의 완전한 회복을 목전에 두고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부여 받았다. 지금 레비나스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레비나스는 타자와 아픔과 고통이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의 영역이라고 말한다. 엔데믹 시대에 그는 우리에게 “친밀한 공간에서 타자의 얼굴을 마주 보는 만남을 가지라”고 말이다. 타자의 얼굴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들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타자의 얼굴에 나타난 아픔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다.

주제어: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 대면사회, 관계성의 공간, 근접성, 기독교 공동체
